

- 1부 -
인간의 성과 사랑의
의미를 통해서 본
동성애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사목적 돌봄을 위한 지침

미국 주교회의 / 손호빈 신부 역

서론

교회의 사명은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복음)을 전하며, 그 분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문화에서 동성에게 끌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는 교회 구성원들은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인간의 섹슈얼리티(human sexuality)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일치하지 않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점(특히

동성애에 대하여)을 수용하려는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만연해 있는 혼란에 직면하여,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동성애 성향 혹은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목적 돌봄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할 적절한 시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침서는 기존에 혹은 준비 중인 프로그램을 사목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 주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이 사목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방향과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인 원칙들

인간 존엄성 존중하기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복음)을 전하려는 교회의 위원회는 하느님께서 창조한 개인 각각이 지니고 있는 인격의 근원적인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의 친교 안에서 그의 혹은 그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랑과 희망으로 모든 인간 인격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Image and likeness)으로 창조되었으며, 인정받고 존중 받아야 할 본연의 인간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¹⁾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는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존중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²⁾ 우리는 이들이 사회의 몇몇 곳에서 비난, 증오 그리고 심지어 폭력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때때로 이런 증오는 명백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가끔은 가면을 쓰고 거짓된 모

습으로 증오를 불러 일으킵니다. “동성애자들이 사람들의 언사나 행동에서 폭력적인 적의의 대상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어떠한 곳에 일어나든, 그러한 처우는 교회의 목자들에게 단죄를 받아 마땅하다.”³⁾

교회의 이름으로 사목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당함에 동조해서는 안됩니다. 사목자들은 정화의 필요성에 저항하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을 식별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헤아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목적 동반이 필요한 그들 또한 거룩함 안에서 성장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기쁜 소식(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도의 진리로 그들을 부름으로써 그들이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⁴⁾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섹슈얼리티의 위치

동성애 현상(The phenomenon of homosexuality)은 인간성(humanity)을 향한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섹슈얼리티의 위치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도전(문제점)을 야기합니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모습으로 인간 존재를 창조하셨으며, 이는 남자와 여자라는 상호보완적인 섹슈얼리티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좋은 것이며, 그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모습과 닮음으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창세 1,27) 지어 내셨을 때,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창조 선물의 일부입니다.⁵⁾” 남성과 여성의 상호보완성은 하느님의 창조 계획 안에 내재된 것입니다. 정확히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는 ‘한 몸의 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

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마르 10,6-8)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적 갈망의 목적은 혼인의 유대 안에 결합된 남자와 여자로 묘사되고, 이 결합은 분리될 수 없는 두가지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 사랑과 책임있는 부모됨(자녀 출산과 양육)입니다.⁶⁾ “부부의 결합은 혼인의 두가지 목적, 곧 부부 자신들의 선익과 생명의 전달을 실현한다.”⁷⁾ 남자와 여자가 자연의 질서에 따라 행동하며 신적 계획에 협력한다는 것은 단지 그들 자신의 개별적 인간 본성을 실현할 뿐 아니라 하느님의 뜻(창조질서) 또한 성취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행위는

인간 섹슈얼리티의 자연적 목적을 성취시킬 수 없다.

그 본성 상, 성적 행위는 혼인의 유대 안에서 그 본연의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혼인의 유대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적 행위도 인간 섹슈얼리티의 근원적 목적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혼인의 유대에 반하는 행위는 새로운 생명을 향한 개방성과 더불어 부부 사랑의 표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혼인의) 두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윤리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질서가 됩니다. “성적 쾌락은, 부부 일치와 자녀 출산이라는 그 궁극 목적에서 벗어나 그 자체를 위해 추구될 때, 윤리적 문란(무질서)이 된다.”⁸⁾

원죄와 개인적인 죄로 인해, 우리 사회에 윤리적인 무질서는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간음, 매춘, 자위행위 그리고 피임과 같은 다양한 행위들입니다. 또한 동성애 행위들은 섹슈얼리티의 참된 목적에 어긋납니다. 그들은 생명을 전달할 수 없는 성적 행위들을 합

니다. 인간 섹슈얼리티를 향한 하느님 계획의 통합된 부분 중 하나인 남자와 여자의 상호 보완성을 반영하지도 못합니다.⁹⁾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동성애 행위들은 “자연법에도 어긋나며, …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¹⁰⁾

이런 판단의 뒷받침하기 위해, 교회는 창조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질서뿐 아니라, 성경을 통한 드러난 계시도 주목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향한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은 함께하고, “둘이 한 몸이 된다”¹¹⁾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동성애 행위들이 언급될 때마다, 하느님의 뜻에 반(反)하기 때문에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¹²⁾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오로가 동성애 행위들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 존재에 걸맞지 않으며, 인간 존재로서의 품위있는 존엄성을 타락시키고 손상시킨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동성애의 의지적 행동들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육체관계를 자연을 거스르는 관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맺는 자연스러운 육체관계를 그만두고 저희끼리 색욕을 불태웠습니다. 남자들이 남자들과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가, 그 탈선에 합당한 대가를 직접 받았습니다.”(로마1,26-27)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양립할 수 없는 것들 중 하나로 동성애의 의지적 행동들을 포함시켰습니다.¹³⁾

동성애 성향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다

교회가 동성애 행위들은 비윤리적이라고 가르칠지라도, 동성애 행위들을 하며 관계를 맺는 것과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 사이는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는 항상 객관적으로 죄가 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 성향 혹은 경향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속하지 않으며, 그 경향 때문에 윤리적으로 비난 받아서는 안됩니다. 만약 누군가 자발적으로 동성애의 유혹들을 즐겼거나 그것과 관련된 행위들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동성애에게 끌렸던 경험 그 자체가 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동성애적 성향은 무질서입니다. 즉, 이는 인간 인격에 참된 선(Bonum)이 아닌 무언가를 향해 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¹⁴⁾ 물론, 이성애자들도 드물게 무질서한 성적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질서를 따르기 위해 이성애자가 되는 성적 지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과 혼인의 중요한 선익들을 무시하고 성적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모든 경향은 무질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향은 창조를 위한 하느님 계획에 일치하지 않는 모습으로 섹슈얼리티를 사용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안에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내재된 무질서가 있습니다 (contra naturam, 본성에 반하는). 또한 올바른 이성을 통해 참된 질서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덕의 올바른 척도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무질서도 있습니다 (contra rationem, 이성애 반하는).¹⁵⁾

이는 동성애자가 특수한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면이 무질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한 성향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하느님 또는 교회로부터 거부당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교회는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무질서하다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점이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무질서한 것처럼 가르친다는 오해와 비난을 받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인간 섹슈얼리티의 자연적 목적들의 성취를 반대하는 특수한 성향이 무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적 성향에 이끌려 하는 행위들은 인간 인격의 참된 선익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동성애 행위들의 특수한 성향은 무질서할지라도, 한 사람으로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내재된 인간 존엄성과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게다가, 인간 인격에게 무질서를 일으키는 것은 단지 성적 성향들만은 아닙니다. 질투, 악의 또는 탐욕으로 이끄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무질서를 일으킵니다. 우리 모두는 무질서를 일으키는 욕망들로 인해, 죄의 결과들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적어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성향들을 단순히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향들에 이끌려 한 행위들은 언제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¹⁶⁾

우리 문화 안의 많은 사람들은 윤리성이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톨릭 윤리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몇몇 사람은 윤리 규범들은 특정 시기에 특정 문화의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인 행동에 대한 지침들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전통은 윤리성의 기초는 창조주께서 세운 자연적 질서 안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질서는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은총의 힘으로 변화되어 보다 고양되었습니다. 선한 행위들은 이 질서에 부합합니다. 이 질서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품위있는 인간성을 실현하고, 최종 목적인 행복을 성취합니다. 비

윤리적 행위들, 모든 것에 있어 자연적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들은 참된 인간 삶의 완성과 행복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사실, 비윤리적 행위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 존엄성을 가치절하하고 손상시키기 때문에 인간 인격을 파괴합니다.

동성애 성향을 위한 치료

동성에게 끌렸던 경험이 있는 많은 사람이 그것은 자신이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성향 때문이었다고 여깁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동성애적 끌림들을 두고 원치 않았던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치료적 개입의 도움으로 동성애적 성향이 바뀔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까지 동성애적 성향의 원인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¹⁷⁾ 치료에 대한 합의도 없습니다. 몇몇 사람이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성애적 경향을 경험했고 치료를 원하는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이해하며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춘 심리 상담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정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여정을 지지해줄 수 있는 고해사제와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덕 훈련의 필요성

동성에게 혹은 이성에게 매력을 느꼈던 누구든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 치료 또는 치유와는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덕의 체화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미덕을 체득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덕을 체득하기 위해서 - 절제, 용기, 정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 반복적으로 그 미덕을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성숙한 미덕을 지니고 있는 선생님들의 격려와 동반과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정결은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덕입니다.** 혼인을 하였든 독신이든, 모든 사람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정결한 삶은 욕정(lust)과 같은 무질서한 인간의 욕망들을 극복하고 하느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의 성적 욕망들의 표현을 드러냅니다. “정결은, 성이 인격 안에 훌륭히 통합되어 있음과 그 때문에 육적이고 영적인 실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내적 일치를 뜻한다.”¹⁸⁾

우리 사회에서 정결을 터부시하고, 이로 인해 인간의 고통과 불행이 만연하게 빈번해졌다는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많은 가정이 혼인 서약이 깨졌을 때 초래되는 인간의 황폐함, 또 성적 난잡함에 의해 자행되는 거짓말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을 직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정결한 삶은 인간에 대한 전인적 확신이며,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간 본성을 거슬렀을 때 고통받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미덕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반복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인정했듯이 올바른 지향을 두고 이에 걸맞는 행동들을 반복할수록, 우리의 감정들(사랑, 분노, 그리고 두려움 등등)은 올바른 행동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기는 더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된 행동들을 반복할수록, 우리의 감정들은 그릇된 행동에 걸맞는 모습으로 형성됩니다. 이는 무질서한 감정들이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들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미덕의 여정을 따르겠다고 결심한다면, 성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지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피하고 올바른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형성한다면, 그는 올바른 행동을 보다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지혜(prudence), 정의(justice), 용기(fortitude) 그리고 절제(temperance)와 같은 기본적인 덕목들을 체득하고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무질서한 감정들을 경험한 것만으로 절망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미덕을 체득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공통적인 출발점입니다. 감정들은 불변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 행동에 있어 변하지 않는 장애물도 아닙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감정들을 억압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반복하는 올바른 행동들은 그 사람이 경험한 감정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사실, 올바로 질서잡힌 감정들은 우리가 잘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¹⁹⁾ 우리의 감정들이 훌륭하게 질서잡혀 있어 언제나 옳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옳고 이성적인 의지가 어떤 욕구들을 건강하게 절제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적어도 잘 행동하고자 하는 우리의 감정들에 대한 방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²⁰⁾

하느님의 뜻에 걸맞도록 우리의 욕구들을 질서 잡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히 우리가 지닌 역량으로만 해보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생명이자 힘인 그리스도의 새 법은 본성 그 자체로 줄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줌으로서 자연법을 완성합니다.²¹⁾ 자연법은 우리가 (계시된 신법과 십계명과 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줍니다. 그러나 죄는 의지를 약화시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성령, 즉 은총의 새 법은 죄의 힘(영향력)을 극복하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게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우리를 다음과 같이 격려해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비 안에서만 우리는 인간의 “구체적인” 가능성들을 발견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이상’일 뿐이라고, 그러니 ‘문제되고 있는 선의 형평’에 따라 이른바 인간의 구체적인 가능성들에 맞추어 적용되고 조율되고 점차로 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오류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구체적인 가능성들’은 무엇이고, 그 인간은 또 어떤 인간을 말합니까? 욕망에 지배되는 인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인간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재,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구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존재의 진리 전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욕망의 지배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해방시켰습니다.”²²⁾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상처 입은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상처들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정과 공동체의 필요성

교회가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사람들과 어울려 우정의 유대를 쌓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분석에 있어, 고대 철학자들은 우정이 올바른 삶을 위해, 참된 행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했습니다. 다양한 종류

의 우정은 충만한 인간 삶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세상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내려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인간적 유대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건강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희망은 거의 없습니다. 고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무질서한 경향들을 악화시키고 정결의 의지적 실천을 약화시킵니다.

동성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폐쇄적으로 우정을 추구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모두와 안정된 형태의 우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도 성기적 행위의 표현(genital sexual expression)없이 다른 동성애자와 지속적인 우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보다 필요한 것은 성기적(직접적 성기접촉에 의한) 표현(genital expression)보다 우정입니다.²³⁾

참된 우정은 정결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결도 우정을 나누지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다. 사실 우정과 정결의 덕은 서로를 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정결의 덕은 우정으로 피어납니다. 정결의 덕은 우리를 당신의 벗으로 선택하시고(요한 15,15 참조),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를 하느님이신 당신의 신분에 참여하게 하신 그분을 어떻게 따르고 본받을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정결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정결은 특히 이웃과 나누는 우정으로 표현됩니다. 동성이나 이성 사이에서 발전된 우정은 모두에게 큰 선익을 주며, 영적인 친교로 발전됩니다.²⁴⁾

우정의 유대가 모든 수준에서 주의깊게 형성되어야 하지만, 가족 구성원 사이의 애정어린 우정은 특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정결의 덕 안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회 공동체는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우정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는 인간 관계와 우정의 풍요로운 원천이 될 수 있으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사람 사이의 우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즉 새로운 사랑의 질서로 이어집니다.

거룩함을 향한 여정

인간 인격의 올바른 삶을 위해 인간의 우정이 실로 필요할지라도,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느님과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인격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친교 안에 참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사명은 하느님과의 최고의 우정을 쌓으며, 성화 은총(sanctifying grace)을 통해 삼위일체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것을 항상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느님과 우정의 통합은 거룩함(holiness)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룩해져야 합니다.²⁵⁾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안에서 소수의 엘리트만이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공의회는 “어떠한 신분이나 계층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교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덕으로 부름 받고 있다는 것은 누

구에게나 자명한 일이며, 그 거룩함(holiness)으로 지상 사회에서도 더욱 인간다운 생활양식이 증진된다.”고 가르쳤습니다.²⁶⁾ 또한 공의회는 그 성덕은 단순히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받아 행동할 때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그 완덕에 이르고자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받은 힘을 다하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분의 모습을 닮아 모든 일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하느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봉사에 온 마음으로 헌신하여야 한다.”²⁷⁾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거룩함(Holiness)에 대한 보편적 부르심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동성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부르심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노력과 자기 절제가 불가피하게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아 포기과 영적 싸움 없이는 성덕도 있을 수 없다.”²⁸⁾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는 이 길을 따르는 데 위로와 도움의 본질적인 원천들입니다. 성사들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파스카 신비는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²⁹⁾ 동시에, 성사들은 인내와 끈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희망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더욱이,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인 삶에 대한 꾸준한 양성을 통하여 영적 전투에 대한 결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적인 장애물들

동성에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사목은 반드시 섹슈얼리티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사목이 효과적이라면 인간 생명의 연속성 안에서 섹슈얼리티의 위치와 인간 인격에 대한 참된 이해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목적 배려를 위한 노력에서 교회의 가르침에서 이탈하거나 그 가르침에 관하여 침묵을 지키는 것은 결코 사목이나 배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³⁰⁾ 사랑과 진리는 ‘한 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살아갈 때”(에페 4,15 참조)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보다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교회는 섹슈얼리티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훼손하거나 이를 모호하게 하고 또는 전적으로 무시하려 드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후원해서는 안됩니다.³¹⁾

동성애에 관한 교회 가르침은 인간 본성에 새겨진 자연법에 주의를 기울이며 성경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심각한 혼란, 무분별한 감정, 그리고 많은 갈등의 소용돌이 안에서 빛과 희망의 표지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는 많은 사람이 교회 가르침에 담겨진 지혜를 pingang히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다양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장애물은 다르다고 인식된 사람들에 대한 편협함입니다. 동성애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몇몇 사람들은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성애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는 사실이 폭력이나 부당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³²⁾

이와 동시에, 오늘날 서구 문화에는 일반적으로 성적 주제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동성애에 관한 교회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 안에는 상대주의적 윤리에 대한 강한 여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윤리적 판단들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는 없다고 인식하지만, 선하고 악한 행동에 대한 판단들은 전적으로 주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관점은, 성적 윤리성의 문제들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명백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제한만을 두고, 자신이 선호하고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 가르침은 객관적 윤리 규범들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 안에는 교회 가르침이 인간의 기본 권리들에 반대되고, 불공정하다고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보통 한치의 이견없이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상대주의적 윤리의 형태에서 나옵니다. 이런 관점은, 교회가 특별한 편견을 유도하고,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는 모든 사람(인격)의 고유한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인간 인격으로서 동성에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과 똑같은 기본 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철폐 주장을 논함에 있어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은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과 비교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없다.”³³⁾ 그러므로, 예를 들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혼인의 유대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또 결합을 원하는 동성애자들에게 오직 혼인에만 속해 있는 유익들(benefits)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혼인을 재정의하여 다른 관계들과 동일하게 만들면, 혼인의 제도가 지닌 가치는 절하되고, 의미는 약화됩니다. 다양한 압력에 의해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 기본 제도의 약화는 이미 너무나 큰 사회적 대가를 치렀습니다.”³⁴⁾

교회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 서구 사회의 또 다

른 공통 특징은 쾌락주의를 향한 광범위한 경향과 즐거움만을 탐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우리 문화의 소비주의와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즐거움을 극대화하려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생활 방식을 부추깁니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성적 관계들은 그저 즐거움의 다른 모습에 불과합니다. 문란함은 그저 수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결의 덕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즐거움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거부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 안에는, 특히 광고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이런 성향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들을 챙기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으로 이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 내 이처럼 강력한 영향들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서 공격적으로 객관적 윤리 규범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적 행동양식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려는 많은 단체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단체들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적지않은 피해를 생산합니다. 이런 도전에 직면하여 교회는 이성적인 토론, 교회의 삶에 대한 증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목적 돌봄

앞에서 언급한 교회 가르침의 기본 원칙들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사목적 돌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들을 제안합니다.

교회의 참여

- 가톨릭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고 구성원이 된 동성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품위있고 고귀한 인간으로 그리고 성덕의 삶을 살고자 여전히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역 신앙 공동체에서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영적 도움의 기초입니다. 그들의 완전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격려합니다.³⁵⁾ 가톨릭 공동체의 전례에 참여하는 것은 정결과 고귀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개인적 회심에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 동성에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목의 성공 필수 요소는 주교와 다른 사목자들의 도움과 리더십일 것입니다. 이 중요한 과업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공동체와 사목자들의 리더십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동성에 성향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거부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동성에게 끌렸던 경험이 있었지만 여전히 교회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의 삶 안에서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가르침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봉사의 역할을 맡기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봉사를 하게 되면, 교회가 비윤리적 삶의 양식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스캔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교회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교회 가르침을 대변하는 입장이거나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렇

게 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교회 가르침에 반대하는 단체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사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 가르침과 관련하여 거리를 두고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³⁶⁾

-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까운 친구, 가족, 영적 지도자, 고해사제, 또는 관련 교회 기관에 자신의 동성애적 경향을 밝힌 사람들에게는 영적 그리고 정서적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본당 활동 측면에서, 공개적 자기-폭로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런 분위기가 조장되어서도 안됩니다.
- 슬프게도, 교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동성애 성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복음화 노력은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많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전담자가 그들을 위해 오롯이 사목하도록 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전체 복음화 노력의 일부로서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교회의 정책들은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부당하게 차별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것을 분명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정책 절차는 이런 부당함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리교육

- 교리 교육은 일반적으로 인간 섹슈얼리티에 관한, 그리고 특별히 동성애에 관한 교회 가르침의 풍요로움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

스도인들은 윤리적 양심상 모든 경우에 완전한 윤리적 진리를 증언하여야 한다. 동성애 행위에 대한 인정과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윤리적 진리와 모순된다. 그러므로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³⁷⁾ 이런 논조는, 교리 교육이 도전은 받을 수도 있지만 환영 받기도 하고, 진리를 확인시켜주며 자비로움을 취하게 해줍니다.

- 교리 교육은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인격적, 성적 그리고 정서적 발달에 있어 첫번째 교사인 부모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섹슈얼리티의 사안들에 있어 자연법과 신법을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 교리 교육은 이 필수적 사목을 자애롭게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양성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들에 대한 선별과 양성을 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 가르침을 지지 않는 사람은 이 사목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신학적으로 논리적이고 사목적으로 지혜로운 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후원하는 것은 양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 윤리적 선택은 건전한 윤리 교육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동성에게 끌렸던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리 교육과 양심의 형성은 가톨릭 사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만연해 있는 사회적 관습에 저항하고 지성적으로 윤리적 판단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근거를 제공해줍니다.
- 풍요로운 교회 가르침은 특히 본당 강론이나 강의 때 그리고 적합한 장소에서 성직자에 의해 전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리

교육은 모든 본당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가르침의 풍요로움에 대한 무지는 종종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효과적인 사목에 있어 엄청난 걸림돌이 됩니다. 본당 내에서 교리 교육은 또한 정결의 소명을 살아내는 데에 필요한 미덕들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타적인 사랑, 용기의 덕, 절제의 덕 등등.

- 공동체를 위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폭력적인 행동을 막아야 하며, 교리 교육을 통해 이런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회의 윤리적-사회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형성된 통합적인 사회 정의를 위한 본당의 사목들은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부당한 차별에 대해 저항해야 합니다.
- 지역 주교들은 교리 교육을 위해 사용된 자료들에 있어 언급된 내용들이 정확한지 그리고 교회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한 교리 교육은 인간 성의 참된 본성과 목적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정결의 덕이 지닌 참 뜻을 올바르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이 정결의 덕은 거의 인정받지도, 이해받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³⁸⁾

전례와 성사 참례

- 교회의 윤리적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려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교회의 성사적 삶에 매일 그리고 온전히 참여하도록 초대와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하고 성화되기

위해 성사들에, 특히 성체성사에, 자주 참여하는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는 성장의 점진적 여정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속도로 걸어가지 않으며, 항상 자신들의 목표만을 향해 가지는 않습니다. 점진적 여정을 걸어가다 주저앉거나,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공동체는 격려를 해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삶의 회심을 통해 거룩함(holiness)을 향해 계속 걸어가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해성사를 자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건강한 영적 안내를 받는 것은 의미있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교회는 “어떠한 이념도, 혼인이란 서로에게 고유하고 독점적인 인격의 상호 나눔을 통하여 두 인격의 일치로 지향하려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존재한다는 확신을 인간 정신에서 지워 버릴 수 없다. 남자와 여자는 혼인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하며, 하느님과 협력하여 새 생명을 낳아 기른다.”³⁹⁾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교회는 혼인의 모습처럼 보이는 동성 간의 민법상의 시민 결합을 포함한 “결혼” 또는 이와 유사한 모든 형태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사목자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결합을 축복하거나 장려해서는 안 됩니다.
- 마찬가지로, 교회는 동성애자들의 자녀 입양을 인정할 수도 협력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성 간의 결합은 하느님 계획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⁴⁰⁾
- 동성 커플들이 돌보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교회의 신중하

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세례 성사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반드시 가톨릭 신앙 안에서 양육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⁴¹⁾ 세례성사를 베풀기로 결정했을 때, 성직자들은 세례 예식을 준비하면서 신중하면서도 지혜롭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례성사 증명서를 작성할 때, 생물학적 부모와 입양한 부모를 구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⁴²⁾

사목적 도움

- 동성에게 끌렸던 경험이 있는 많은 윤리적인 사람들은 “LGTB 문화”의 생활방식과 가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가톨릭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교회 사목자들은 그들이 교회 가르침과 지침 그리고 형제애를 통하여 인내하며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성직자들의 영적 동반입니다.
-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특별한 격려와 인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애초에 동성애적 관계나 그 하위 문화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더 많은 장애물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 동성애적 끌림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에게 이런 끌림들이 일시적이거나 상황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생을 좌우하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⁴³⁾ 동성애적 끌림들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부담없이 교회의 사목적 도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동성애적 끌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하는 모임을 갖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특별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르다”고 느끼고, 이는 그들을 고립과 소외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결하지 못한 행동 양식을 포함하여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동성에게 끌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위해 교회 가르침을 고수하며 구성된 지원 단체들은 교회의 사목에 있어 중요하며, 그들을 지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⁴⁴⁾ 그러나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적 성향으로 스스로를 우선적으로 단정하거나 비윤리적인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LGTB 문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넓은 공동체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적 끌림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목적 그리고 심리적 돌봄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동성애적 끌림을 느낀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의해 문란한 성적 유희와 착취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 충동들과 시도를 포함한 개인적인 어려움에 놓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인간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안들에 있어 교회 가르침을 존중하며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전 연령대에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동성에게 끌렸던 사람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는 그들이 인간 인격에 대한 교회의 이해를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 서비스들은 교회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알려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사목적 도움에는 HIV/에이즈를 포함하여 성행위로 전염되는 성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돌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족 중 누군가가 동성애적 경향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 심각한 근심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럼에도 가족 간 사랑의 유대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는 개인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 모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지닌 인간 존엄성과 관련된 교회 가르침과 품위 있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함으로 이끄는 정결과 관련된 윤리적 원칙들의 풍요로운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사회의 다른 단체들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르침을 바탕으로 교회는 각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점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안내와 참여를 권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현대 문화의 만연한 영향력은 때때로 동성애에 관한 교회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맥락에서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교회 사목자들이 동성애 성향

이 있는 사람들의 경험, 요구 그리고 희망에 귀 기울이는 것은 사목자와 그들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대화는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타고난 존엄성과 그들의 양심을 존중하며 소통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대화는 내적 회개와 참회를 통한 개인의 재생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때 각자의 양심을 깊이 존중하고 인내롭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현대의 상황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조건들을 늘 기억합니다.”⁴⁵⁾ 이런 대화는 의사소통에 진심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끊임 없이, 내적인 회심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 곁에 다가가 끈기있게 그리고 충실하게 사목과 봉사를 해 준 형제 자매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들 속에서도 헌신해왔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이 중요한 봉사를 이어가는 데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

교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할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안에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교회의 모든 사명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여정 안에서, 우리는 저마다 받은 은사들은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인 형제 자매로서 건강하고 거룩한 친교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요한 11,52)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느님의 사람들이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 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에페 4,2-6)

원문: 미국주교회의의 www.usccbpublishing.org

Ministry to Persons with a Homosexual Inclination: Guidelines for Pastoral Care

- 1) 가톨릭 교회 교리서, 1700-1702항을 보라.
- 2)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58항.
- 3) 동성애자 사목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10항.
- 4) 「현대의 복음 선교」, 79항을 보라.
- 5) 「인간의 성(性), 그 참모습과 참 뜻」, 11항.
- 6) 역주: 동일선상에 있는 혼인의 두 목적인 부부 사랑과 책임있는 부모됨(자녀 출산과 양육)은 부부 사랑 안에 부부간의 상호 지지와 도움 그리고 보완과 더불어 자녀 출산과 양육의 의미를 동일한 가치와 의미로 담겨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두 목적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부부 행위는 남편과 아내를 지극히 굳건한 유대로 결합시키며, 남자와 여자의 존재 안에 새겨진 법칙에 따라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한다. 일치와 출산이라는 본질적 측면을 모두 보호할 때, 부부 행위는 참된 상호적 사랑의 의미와 부모 됨이라는 소명을 향한 질서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간생명」, 12항 참조).
- 7)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63항; 교회법 제1055항 1절 참조. : 부부의 육체 결합으로 혼인의 두 가지 목적, 곧 부부 자신들의 선익과 생명의 전달이 실현된다. 혼인의 이 두 가지 의미나 가치를 분리시킬 수 없다. 그럴 경우, 반드시 부부의 정신 생활이 변질될 것이며, 또한 혼인의 선익과 가정의 장래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남녀의 부부에는 이처럼 신의와 자녀 출산이라는

이중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 8)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51항.
- 9)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57항.
- 10)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57항. 성 윤리상의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 8항을 보라
- 11) 창세기 2,24. 창세 1,27; 마르 10,6-8; 에페 5,31을 보라.
- 12) 창세 19,1-19; 레위 18,22. 20,13을 보라.
- 13) 1코린 6,9; 1티모 1,10을 보라.
- 14) 간과할 수 없는 숫자의 남녀가 깊이 뿌리박힌 동성애 성향을 보이고 있다. 객관적으로 무질서인 이 성향은 그들 대부분에게는 시련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중하고 동정하며 친절하게 대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들의 처지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결합시키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358항).
- 15) “동성애자의 특수한 성향이 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적인 윤리악으로 기울어지는 다소 강력한 경향이다. 따라서 그 성향 자체는 객관적인 무질서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목상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져, 그들이 동성애 행위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믿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성애는 용납될 수 없다.”, 동성애자 사목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3항.
- 16) 상황들이 개별적 사례들에 있어 유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성애 행위에 대한 의지는 항상 잘못된 것이다. “사실, 주어진 사건에서 개인의 유죄성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고 과거에도 존재하였을 수 있으며, 또는 다른 상황이 개인의 유죄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동성애자의 성적 행위는 언제나 그리고 전적으로 강제적이며 따라서 무죄라고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치졸한 가정은 반드시 피하여야 한다.” 동성애자 사목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11항.
- 17) “동성애의 심리적 기원은 거의 밝혀져 있지 않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57항.
- 18)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37항.
- 19) “감정이 선한 행위에 이바지할 때에는 윤리적으로 선하며, 그 반대 경우에는 악하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768항). 따라서 인간 인격의 이해와 인간 실존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감정들은 선하거나 악한 행위들과 관련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교회는 신적 계시의 선물과 이성의 능력을 통해 인간 인격의 이해와 인간 실존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위해 어떤 행위가 선하고 자연스러우며 어떤 행동이 올바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이 인간의 행복을 성취

하며 어떤 행동이 불행으로 이어지는지 일깨워 줄 수 있다.

- 20) “정결은 자제력의 훈련을 요구한다. 이 훈련은 인간의 자유를 배우는 교육이다. 인간이 정욕을 지배하여 평화를 얻느냐, 아니면 그 정욕에 자신을 맡겨 불행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렸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39항.
- 21)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65-1974항을 보라.
- 22) 요한 바오로 2세, 「진리의 광채」, 103항.
- 23) 미국 주교회의의 사목연구와 실천을 위한 위원회, 동성에 문제를 고백한 사람들을 위한 지침 원리들, 11항.(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Committee on Pastoral Research and Practices, Principles to Guide Confessors in Questions of Homosexuality (Washington, DC: USCCB, 1973), 11.)
- 24)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47항., 인간 성의 그 참 모습과 참뜻, 17항: “정결은 모든 형태의 자기 중심적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 증여를 실천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의 기쁨에 찬 확신입니다. 정결은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법을 터득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정결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이기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정결은 조화로운 인격을 길러 줍니다. 정결은 인격을 성숙시키며 내적 평화로 채워 줍니다. 이러한 정신과 육체의 순결은 참된 자아 존중으로 이끌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결은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야 할 인격체로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은총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 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1베드 2,9)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 25) 레위 11,44-45; 19,2; 20,7; 26,1과 1베드 1,16를 보라. 마태 5,48; 루카 6,36을 보라.
- 26)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적인 삶과 자비의 완성을 이루도록 불려졌다. 이 거룩함은 어떤 사회에서든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교회헌장』, 40항)
- 27) “이 완전함에 도달하기 위해 신앙심 있는 사람은 하느님이 주신 힘을 이용해야 한다.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하느님께 순명한다. 또한 마음을 다해 하느님의 은총에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교회헌장, 40항)
- 28) 가톨릭 교회 교리서, 2015항.
- 29) 『전례헌장』, 6항을 보라.
- 30) 동성애자 사목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15항.
- 31) 동성애자 사목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17항을 보라.
- 32) Se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Considerations

Regarding Proposals to Give Legal Recognition to Unions Between Homosexual Persons (March 28, 2003), no. 8,
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con_cfaith_doc_20030731_homosexual-unions_en.html.

- 33) 신앙교리성, 동성애자 차별 철폐 법안 관련 답변에 관한 일부 고찰, 10항
- 34)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Between Man and Woman: Questions and Answers About Marriage and Same-Sex Unions* (Washington, DC: USCCB, 2003), question 5. 신앙교리성, 동성애자 차별 철폐 법안 관련 답변에 관한 일부 고찰, 9항: “관계 규정의 제정에 있어서, 주교들은 가정 생활을 수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자신들의 최대 관심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35) USCCB, *To Live in Christ Jesus: A Pastoral Reflection on the Moral Life* (Washington, DC: USCCB, 1976), no. 52.
- 36) Se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Notification Regarding Sr. Gramick and Fr. Nugent* (May 23, 1999), *Origins* 29:9 (July 2, 1999): 133-136.
- 37) 신앙교리성, 동성애자 결합의 합법화 제안에 관한 고찰(2003년 6월 3일), 5항.
- 38) 유용한 자료로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을 참조하라.
- 39) 신앙교리성, 동성애자 결합의 합법화 제안에 관한 고찰(2003년 6월 3일), 2항.
- 40) 신앙교리성, 동성애자 결합의 합법화 제안에 관한 고찰(2003년 6월 3일), 7항을 보라.

동성애자들의 결합에는 이성의 차원에서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혼인과 가정이 지닌 생물학적이고 인간학적인 요소들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동성애자들의 결합은 인류의 번식과 생존에 적절히 이바지할 수 없다. 근래에 발견된 인공 생식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심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동성애자 결합이 인류의 번식과 생존에 적절히 이바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

동성애자들의 결합에는 또한 인간적이고 질서가 있는 성의 형태를 보여주는 혼인의 차원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성 관계는 혼인을 통하여 성의 상호 보완성을 드러내고 증진하며 새 생명의 전달에 열려 있을 때에만 인간적이 된다.

경험이 보여 주듯이, 동성애자들의 결합에는 성의 상호 보완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보살핌에 맡겨지게 될 어린이들은 부성 또는 모성을 경험할 수가 없어서 정상적인 성장에 방해를 받는다. 동성애자들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 그러한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들의 조건을 이용하여 그

들을 완전한 인간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에 놓아 두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며 국제 연합 어린이 권리 현장에서도 인정하는 원칙, 곧 약자이며 자기 방어력이 없는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을 모든 경우에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공공연히 위배되는 일이다.

- 41) 교회법, 제868조 1-2절을 보라.
- 42) See USCCB complementary norm on the recording of Baptism of adopted children at www.usccb.org/norms/877-3.htm.
- 43) Se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Declaration on Certain Questions Concerning Sexual Ethics, no. 8. "A distinction is drawn, and it seems with some reason, between homosexuals whose tendency . . . is transitory . . . and homosexuals who are definitively such."
- 44) 교회 가르침에 부합하는 원칙들을 지키며 사목하는 몇몇 봉사자들의 본보기는 용기와 격려가 된다.
- 45) 요한 바오로 2세, 「화해와 참회」, 25항.